서울시, 한강 중심으로 도시공간 재구성한다

▲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신착장과 한화 63빌딩 모습. 사진=shutterstock

서울시가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관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강을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지이자 국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한강변 주요 거점을 연계·통합하는 방안, 한강 일대 교통인프라·녹지생태도심 확충 방안, 간선도로 개선과 연계한 신규 공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비전 2030' 을 통해 수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키로 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공간정책 중 하나로 수변 공간 재편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변 주요 거점 간 기능적, 공간적 연계·통합 방안을 구상한다. 한강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 운영 방안, 수상교통 기반 등 교통인프라를 만들고 시민의 여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생태거점조성 등 녹지생태도심 연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 개선 시 확보 가능한 공간을 파악해 수변공간 구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한강변 관리할 것" 이라며 "한강 수변의 잠재력을 활용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 라고 말했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취임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 명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 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 며 자유의 가치도 부각했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 고 말했다.

안보 이슈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며 "전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직장인 95.5% "점심값 부담된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점심 한 끼에 1만원대가 넘는 금액이 형성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세계일보' 에 따르면 인적 자원 관리 기업 인크루트는 이날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감 정도와 관련한 생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응답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점심값 부담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6.0%는 '매우 부담' , 39.5%는 '약간 부담' 이라고 답해 95.5%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음식점에서 사 먹음' 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동구내식당 이용' (24.6%), '도시락을 직접 싸옴' (11.5%), '배달 음식' (8.2%), '편의점 음식' (4.9%) 순이었다.

점심값이 부담된다고 답한 이들 중 식비 절약 해결 방안이 '있다' 는 응답자는 45.2%, '없다' 는 응답은 54.8%였다.

식비 절약 방안으로는 '직접 도시락 싸오기' (41.1%)와 '저렴한 음식 메뉴를 선택해 지출 줄이기' (34.9%)를 주로 꼽았다.

직장인 선호 4대 점심 메뉴는 제육볶음, 김치찌개, 짜장면, 돼지국밥이었다.

가성비 최고의 점심 메뉴는 정식, 찌개 등 백반류가 35.3%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라면, 떡볶이, 김밥 등 '분식류' (21.6%), 3위는 '국밥 및 해장국' (16.2%), 4위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 '패스트푸드' (9.0%), 5위는 '편의점 도시락' (5.2%)이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